

노인의 소망*

김 은 숙** · 김 귀 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의료의 질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노인인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o, kim, 1996; Kim, 1998). 통계청(2000)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도에 62.3세에서 1999년에는 75.6세로 증가되었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하였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간은 수를 다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노년기는 노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Ko, 1985; Kim, 1997; Park, Jae, Oh, 1995; Lee, 1998; Palmore, 1979). 따라서, 노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를 보람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적합한 인간다운 인생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단순히 생명을 연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시키도록 해야한다(Kim, 1997; Kang, Park, 1999). 또한, 노인을 쇠퇴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생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갖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존재로서 인식해야 한다(Choi, Kim, 1997). 희망은 ‘소망이라는 장래에 대한 정서들’ 전체 중의 한가지로써, 확신, 실망, 불안, 낙담, 의기소침 및 절망 등의 정서들 중 하나이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여 기대되어지는 소망의 과정이다(Butler, 1962; Rycroft, 1979).

지금까지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으며, 노인과 관련된 희망에 대한 연구도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수량화하여 다룬 2편의 양적연구(Kim, 2000; Sung, 1999)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노인들의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자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인간을 통합된 전체로 보는 간호의 인본주의적 신념과 일치하며 간호라는 과학과 인본주의간의

* 본 논문은 2002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요약임.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조교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투고일 2002년 5월 29일 심사회의일 2002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24일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Leininger, 1985). 그러므로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짧은 생애동안 노인이 간절히 바라는 희망, 즉 소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적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여 의미구조를 기술하고, 기술된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고나 판단의 흐름이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현상에 관한 진술이 반복될 때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험의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까지로 여자 5명, 남자 2명으로 총 7명이었다. 연령은 65세에서 83세까지이며 평균 연령은 약 74세였고 종교는 기독교 1명, 불교 3명, 무교 3명이었다.

3. 연구자 훈련과정

본 연구에 사용될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도구이므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문헌이나 선행연구를 탐독하였고, 대학원 과정에서 간호현상과 질적연구(3학점)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및 면담 기술의 숙련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면담 및 참여·관찰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1년 5월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른 2001년 8월까지 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참여자를 자주 방문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시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질문내용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등과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으로 접근하였다. 이야기하는 동안 핵심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라도 참여자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으며, 이야기가 끝났을 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표현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다음 방문 시에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시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양해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한 면담 후 즉시 직접 기록하고 참여자의 말로써 기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이나 면담시 상황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완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5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평균 약 1시간 20분이었고, 1인당 면담 횟수는 3~5회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가정과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미리 약속을 하여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Giorgi(Parse, 1985)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이야기하고 연구자가 관찰하여 기술한 내용을 기술단위로 하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소망을 나타내는 주제를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단위 내에서 참여자의 소망이 의미하는 중심의미를 연구자의 말로 규명하였다. 이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소망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고,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소망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들었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확인된 의미기술이 참여자의 의미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되돌려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원자료에 의해 확인된 의미구조는 질적연구방법을 연구하는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Ⅲ. 연구수행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들의 내면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사생활 노출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동의가 요구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했어도 연구 도중에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사생활이 지켜지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서 하였으며, 주로 참여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사례별 의미 기술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하고 연구자가 관찰하여 기술한 소망에 대한 경험을 기술단위로 하여 주제와 중심의미를 규명하고 이것을 통합하여 각 연구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사례 1. 윤 ○○ (여. 65세)

참여자는 고향을 떠나 미혼인 딸과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으며 대접받길 바라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고향으로 내려가 좋은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자식들과는 아무런 갈등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한다. 경제력을 갖추어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며, 넉넉한 용돈과 자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함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싶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사례 2. 신 ○○ (여. 67세)

참여자는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살면서 대접받길 바라며, 막내아들의 결혼과 형제간의 우애,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으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싶어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자주 자식들에게 안부전화를 받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생활로 독립적인 삶을 원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당당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바라고 있다. 가끔 남편과 함께 했던 삶을 그리워하며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며, 남에게 베풀어가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 3. 배 ○○ (여. 78세)

참여자의 아들은 효자이지만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아무런 갈등 없이 대접받길 바라며, 장애자인 장남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 사는 동안 예전의 식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 바라며,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자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살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며, 넉넉한 용돈을 기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바라고 있다. 지금은 며느리를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적절한 시기에 잠을 자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여 행복한 끝맺음을 하고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 4. 김 ○○ (남. 72세)

참여자는 나이가 더 많아지면 자식과 함께 살면서 대접받고자 하며, 자식들이 서로 우애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참여자도 행복을 느끼며, 이웃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예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며,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경제력 확보를 통한 독립적인 삶을 바라고 있다. 넉넉한 용돈을 기대하며 경제적 자립을 바라고 있으며,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식에게 의지하고자 한다. 뼈대있는 가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후에는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 묻혀 행

복한 끝맺음을 하고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 5. 임 ○○ (여, 80세)

참여자는 자식과 함께 살면서 대접받고자 하며, 고생 하면서 살아온 옛날을 가장 행복한 시절로 회상하면서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집보다 더 의지가 된다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멀리 있는 자식들의 잦은 안부 전화를 통해 평안하게 살기 바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넉넉한 용돈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로 삶에 만족해한다. 함께 살고 있는 장남을 가장 믿으며 자식의 보살핌 속에서 자식을 의지하며, 적절한 시기에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할아버지 옆에 묻힘으로써 행복한 끝맺음을 하고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 6. 박 ○○ (남, 70세)

참여자는 자식들이 공경하면서 대접해 주길 바라며, 자식들은 건강하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길 바라고 있다. 이웃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싶어 하며,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식들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받으며 넓고 좋은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길 바라고 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를 책임지면서 경제력을 확보하여 자유롭게 살고싶어 하며, 넉넉한 용돈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길 바라며,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로 현실에 만족하고자 한다.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장남에게 의지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신의 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행복한 끝맺음을 하고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례 7. 오 ○○ (여, 83세)

참여자는 며느리와 아무런 갈등 없이 대접받길 바라며, 어릴 때 떠나 온 고향에 가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며 자식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고싶어 한다. 제 명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예전의 식욕을 유지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식들로부터 자주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고자 한다.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고싶어 하며,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현실에 만족해한다. 큰아들과는 따로 살고 있지만 자식의 보살핌 속에서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여 행복한 끝맺음을 하고 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일반적 구조적 기술

7명의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합하여 나타낸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효자녀	· 00 아버지는 참 호자라요. 생전 저 어머니 부애를 지르나 · 손자들이 이쁘고 보고 싶고 지금도 며칠 되면 보고 싶어요.
	손주와 같이 하고싶은 마음	· 아들이 착해요. 아들뻘에 있지. 그 아들 뻘에 살아요. 그게 낙이지. · 손자, 손녀는 똑같더라구. 그렇게 이쁘고 안보면 보고싶고, · 아들이 보고싶어 가고싶어.
대 접 받 는 삶	갈등 없는 삶	·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 이래 생각하고 · 어테 갔다와서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이래만... 말없어... · 얼른 죽어야지. 이 꼴 저 꼴 안보고 그냥. 얼른 죽어야 해요. 오래 살아가 뭐할라고. · 아이고, 참말로 내 속 썩는 거 몰라요. 어휴, 내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자식으로부터 공경	·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 잘하고 · 살아 계실 때 참, 물을 한 그릇 쥐도 따뜻하게 주는 그 기 공양하는 거지. · 자기 부모나 남의 부모나 노인들한테 공경스럽게 말해야 되고, 공경스럽게 인사하고 · 스스로 우러 나가지고 밥 한 술이라도 공경스럽게 해주고 · 같이 지내면은 뭐든지 든든하잖아. 집을 봐줘도 그렇고, 뭐든지 든든하지.
	자녀와 같이 하는 삶	· 글썽 가차웁게 살아야지. 가차운 데 사는 게 낫잖아. 보고 싶으면 가서 보고. · 에이고, 멀리 있는 자식들은 보고 죽겠나. 그래 싶은 게 보고싶을 때가 많아. · 미국 거 놔둘 수는 없대여. 휴, 그래서 안보내줘서 못 가.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행복한 삶	귀향 하고 싶은 마음	· 내 소원이 딱 한가지 있어. 고향에 못 가봤어. · 그래, 애원이 그거 한 개라. 고향에 한 번 가보고 죽었으면. · 내년 봄에나 돈을 좀 주모아 가이고 한 번 가볼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 옛날에 애들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은 게 그게 젤 행복 같애어. 그게 젤 행복 같애어.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만 좋겠어.
	칭찬 받는 자녀	· 남한테 욕먹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게 젤 소망이지. 남을 갖다가 지 친부모처럼 대하고, 항상 말이라도 존경하게 해주고 그래 살만 부모가 젤 바라는 거지.
	자식의 결혼	· 우리 막내아들이 결혼이래도 잘 해서, 결혼 문제가 젤 중요한 것 같애. · 내가 저거를 장개를 보낼라고... 안돼요. 부모 맘에는 왜 자식을 장개를 안 보내고 싶겠어요. 뼈가 다 아프지. · 아들 둘 결혼도 못 시키고 죽으면, 내 할 짓을 못하고 죽는갑다. 이런 맘이 자꾸 들어.
	동기간의 우애	· 동기간에 뭐래도 나눠서 먹고 화목할 때 그게 젤 기뻐. · 저들이 마음 적으로 잘 살라고 서로 화합해야 돼.
	자식의 건강	· 아들만 건강하게 잘 살만 그걸로 만족해. · 저거 밥 먹고살고 몸 건강히 있으만 되는 기고 뭐. · 자기 책임완수. 몸 건강히 잘 있고 그게 젤 좋은 거지. · 쫓, 몸 건강히 잘 살만 된다카는 그것 밖에 원하는 게 없지. · 살아가면서 아들들 아프면 약도 해주고, 그렇게 살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삶	·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때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찮더라구. 주는 재미가 더 기쁘거든. · 자식한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맘이니까. · 돈 있는 거 큰아들 쥐야지 이기고, 한 푼이래도 그리 쥐야지.
	자식의 자립	· 자식들은 저거가 알아가 해야되는 기고, 일일이 부모한테 지대고 살고 이러만 안되거든. · 저거 할 일은 저가 해야 되는 기고, 다 키워 줬은게. · 부모는 자손들이 잘 살아야지. 못 살면 마음 아프겠어. · 자식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것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이거나 같으니까.
	자손의 행복	· 나쁜 일이나 없이 저희나 화목하게 잘 살면 최고지 뭐. · 저 잘 살아 주만 그걸로 행복이라. · 저거 장개가 잘 살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친구 관계 유지	· 나는 뭐, 혼자 살다가 저거하면...요기 여자 할머니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나하고 둘이 같이 살자고 그랬잖아. · 서로 할 말 있으면 다하고 감추는 게 없어. 집에서는 다 못지기도 거 가만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래 좋아. · 안 심심하고 좋아어. 서로 등도 써주고 등도 닦아주고 그래. · 마이 의지가 되지... 집보다 의지가 더 돼.
평안한 삶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	· 내 맘대로 경제적으로 다 갖춰있으면 여행하고 싶지요. · (남편이)같이 있었으면 같이 여행가는 거 그게 젤 소원이여. · 다리(남) 사는 거 보고 땡기미 구경도 하고. · 금강산이라도 한 번 가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야 많지.
	건강 유지	· 오래 살면은 내가 우선 건강하고 싶고 · 첫째, 몸이 건강해야 돼. · 뉘니뉘니 해도 건강이 되야지만이 돈도 벌 수 있는 문제고 · 바래봐야 내 밍이나, 건강이나 바래지.
	식욕 유지	· 에이고, 어떤 사람들은 밥도 잘 먹든구만. 밥 먹는 거 보만 불벼요. · 탄날 속이 아파가 밥 한 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 일단은 밥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그게 소원이이지.
	평온한 마음	· 빗 없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혀. · 어휴, 마음이나 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마음이나 편하다 죽으면... · 살아 게실 때 나 많은 이를 마음을 편토록 해주는 거. 이게 자숙할 도리지.
	진실한 마음	· 뭐 해줘서 좋은 게 아이고 마음 한가지라도 잘 하면 그게 좋은 기라요. · 남한테 거짓말 안하고 내 진실로 사는 기라. ·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 마음 · 행시를 똑바로 하고 양심껏 해야 되지. 그래야. 진실로 사는 거지.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평안한 삶	자식의 작은 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빠도 한 번씩이라도 부모 꼭 찾아보고 전화라도 자주하고 그러면 제일 기쁘요. ·자주 전화라도 하고 자주 찾아오는 거. 그 때가 젤 기쁘고 의지가 되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는데? 나가 살았은께 전화라도 해준께 고맙지 뭐.
	좋은 집에 대한 열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이나 좋은 집 사줘서 내 가는 날까지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집이나 좋은 집에서 남은 여생 살고 싶으니까 ·집을 인제 터가 있고 한께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집도 하나 갖고 있고 이래만 고민이 없어지는데...
독립적인 삶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한테 저거하지 않고 사는 게 최고지.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 놓으면 지네가 벌어서 나한테 저거...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했었어. ·아들들한테 신세 안 지고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해야지. ·누가한테 의지하고 지낼 데 있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자유로운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 시대는 미느리하고 같이 안 살잖아. 자유가 벌써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 ·어휴, 이제라도 나가 살다가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자는 잠에 죽으면...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좀 면해가 죽으면 안 낫겠어? 이래가 그래서 내가 못 나가가 내가 이래 살았는데 후회까 막심하고... ·집에 있으면 내 맘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내 맘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미느리 집에 가만 그리 안되어. 조심스럽고, 어른 노릇하기도 힘든다칸께. ·난 절대로 미느리한테 안 가여. 한 열흘만 지나면 내 맘 적으로 눈치가 보이지 싶어. ·몸만 성하만 안 아프고 요래만 뭐, 먹는 대로 먹고, 입는 대로 입고 자유라.
	집이 되기 싫은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식들하고 같이 살만 옛날 사람 같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한테 짐이라. ·내 발로 못 땀고 들어앉아서 미느리 애막일까봐 그게 걱정이라. ·자식들 애 안먹이고 편안하게, 난 그게 소원이라.
	경제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그냥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가 최고지. ·자기 돈이 없으면 안돼. 다만 열매라도 있어야지. ·노후대책은 반드시 있어야겠더라구. ·내가 장사도 안하고 푼돈이 괴로우만 그게 젤 문제지. 장사를 한께 푼돈은 안 괴로워. ·가게 안하면 난 죽는 기지. 그런께 죽을 때까지 한다가잖아. ·내가 죽어도 내 품안에 품고 죽지. ·나 죽을 때까지 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으면 낸중에 더 설움 받을라고
경제적 자립	넉넉한 용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 생활비 주는 거야. 그게 다 부럽지 안 부러워? ·용돈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달라고는 못해요. 그런께 어렵고. ·살아 생전 잘 되가지고 용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대주고 하면은 다 좋은 일인데, ·아이고, 월급 탄 날 주면 우웬돈은 돈 심원도 없어요. ·저거 잘 벌만 용돈이나 좀 주고 뭐, 나 많은 사람은 돈 주만 젤 좋다카거든.
	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 먹을 거 준비해 놓았잖아. ·남한테 땀땀하지 못한 거. 내가 노력해서 당당하게 살고 싶지. ·심원 하나라도 내 손으로 벌어가 먹고살라고 연구를 해야 되지. ·노력해가 푼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걸 해야지. 죽을 때까지 놀고먹을 수는 없어. ·내 노력해가고 먹고 살만 젤 행복한 거지.
만족한 삶	경제적 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 과거 소아마비 걸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장애자 취급해 가지고 얼마큼씩 나오거든. 우리 같은 거는 나 오는 것도 없고. ·우리 탄광에서 일하고 속에 병든 그런 사람은 안 해준다 이기라.
	분수에 맞는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분수 넘치도록 욕심 바랄 거는 하나도 없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봐야지. 사람은 쳐다보고 살만 안되어. 니리 보고 살아야지.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찌진다고, 내 분수대로 살만 되고. ·너무 허욕심과 돈을 탐을 내지 마라 이기라. 돈을 탐을 내만 돈도 안 붙어어.
	자식에 대한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식들이 다 잘한께 뭐. 00어머미도 잘하고, 00아바이도 잘 하고 다 잘해. ·밥 해주고, 옷 써주고, 집 있고 뭐, 미느리 잘 해주고 이런께 만족해.
	현실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 살면서 불편한 기 많지만은 인제는 내가 이해하잖아요. 이해하고... ·돈 심원도 없고 인지는 할 수 없어요. 죽으나 사나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인제는 뭐, 살림 내돌라게도 내 주도 안하지. 쫓, 이래 살다 죽는 기라요. ·난 요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난 요대로도 만족해. ·불편하다시피 생각하만 안돼. 어렵히 이러 이러나라 하고 살아야지.

<Table 1> 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continued)

focal meaning	theme	raw data
의 지 하 고 싶 은 마 음	남편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 남편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 취직이 안 돼서 켈 힘들었어요. 그 때 남편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구요. · 남편 갑자기 없었을 때 같으면 식구가 다 죽은 거지요. · 결혼시킬 때, 그 때 의논할 사람 없어서 힘들었어요.
	자식의 보살핌	· 자식이 있으니까 의지하고, 의지하고 살으니까 고마울 따름이지 뭐. · 제일 의지가 되는 거는 아들들이지. 그래도 울타리고 자식 있으니까 살았지. · 아들들 믿고 사는 거지. 아들들이 든든하지. · 자식들 바라고 살았는데 부모 생각 안 한다면 어떡해. · 말이한테 켈 잘 해주고 싶지 마음은. 그래도 뭐, 자식이라도 믿는 거는 말이밖에 없지
봉 사 하 는 삶	배우는 생활	· 자기가 남한테 배울고 봉사해야 가지 있게 사는 거지. · 마음만 가져서는 안되지.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그게 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 · 돈으로 못하니까 몸이래도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럴 적에 남한테 대접받고 좋은 일 아냐? · 경제적으로 넉넉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헌신하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데. · 돈 있으면 이웃에 못사는 사람, 좀 쥐뿔고 같이 살자 이러지. 이웃사촌이라.
빠 대 있 는 가 문	선조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 옷대 산소 보만 과거 뭐 해먹었다 뭐 어떻게 나오잖아. · 아들한테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정조할아버지가 뭐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 뿌리가 첫째 있은게 손도 나는 기고. ·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하고 자식들 교육을 써이가고 만들어야 될거 아이라.
행 복 한 끝 맺 음	편안한 죽음	· 마음이나 편하다가 자는 잠에 죽으면 대복이다. · 아들, 딸 애 안 먹고 그만 자는 잠에 거주만 그계 내 소원이라. · 죽을 때 잘 죽어 주만 그계 소원이지. · 그래, 저녁으로 누워서 자는 잠에 가구로 해주세. 아침에 들다보거든 예고, 죽었구나 그래 해주세. 그계 내 소원이라. · 저녁 잘 먹고 아침에 들다보면 죽어뿌만 그계 켈 행복이라.
	적절한 시기의 죽음	· 오래 살아가 좋은 거 없어요. 오래 살고 시운 맘은 요만치도 없어요. · 언제 죽을라고 안중 안 죽는고 이래 싶고 · 어휴, 마이 살았는데 팔십이나 살았는데 고만 죽으면 좋은데 ·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라. · 어쩔 때는 하루하루가 지엽어여. 어휴, 오늘 저녁에나 죽어줄랑가, 내일에나 죽어 줄랑가 이래 싶어여. · 늙으니 인제 사는 것도, 세월도 지엽어여. 우째가 싶어여.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	사후 처리	· 내 시키는 데로 묻어줬으면 제일 낫겠다 이기라. · 내 원하는 데 고래 묻어 주만 좋겠다 이기라. · 우리 화장은 안해. 우리는 아무도 화장한 사람 없어. 내 미터도 사났고, 할바이 절에 산도 사났고 그래. · 아들이 내 갈 자리도 사났고 미터도 다 사났어.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	· 죽을 단도리는 딱 해놓고 죽어야지. 그것도 부모 책임완수 아니라. · 우애든 단도리는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단도리를 못하고 죽은게 그래 되는 거 아이라. · 안하고 딱 들어앉았으면 자식들이 안 주만 뭐, 예를 들어서 영감, 할마이 죽을 거, 송장비라도 모다 놓아야 되거든.

V. 이야기 줄거리

1. 노인의 소망에 대한 의미구조

노인의 소망에 대해 파악한 일반적 의미구조는 '대접 받는 삶', '행복한 삶', '편안한 삶',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만족한 삶', '의지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는 삶', '빠대있는 가문', '행복한 끝맺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대접받는 삶' 으로 나타났으며, 효자녀, 손주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갈등 없는 삶, 자식으로부터 공경, 자녀와 같이 하는 삶의 5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인 장남과 참여자를 모시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셋째 아들을 효자라고 하며,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재물을 보는 것이 낙이라고 한다. 또한, 며느리와는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길 바라고 있으며, 자식들은 부모가 고생한 것

을 알아주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길 바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으며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여 함께 살고 싶어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그리워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식, 손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참여자를 공격해 주길 바라며, 아무런 갈등 없이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행복한 삶'으로 나타났으며, 귀향하고 싶은 마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칭찬 받는 자녀, 자식의 결혼, 동기간의 우애, 자식의 건강,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삶, 자식의 자립, 자손의 행복, 좋은 친구 관계 유지,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의 11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백일 때 강보에 싸여 고향을 떠난 후로 80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으며 죽기 전에 고향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지만 지난 과거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자식들이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서 참여자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식들은 적정 연령에 결혼을 해야 부모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며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면서 건강하길 바라고 있으며, 자식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고 한다. 장성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길 바라며, 사별한 여성 참여자들은 여생을 친구와 함께 보내길 바라며 집보다 더 의지가 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만큼 노인에게 있어서 친구의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여행을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과거 삶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실의 행복을 바라며, 자식이 칭찬을 받고 적정 연령에 결혼을 하고 동기간에 우애있게 지내길 바라며, 자녀를 도우면서 친구,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평안한 삶'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유지, 식욕유지, 평온한 마음, 진실한 마음, 자식의 잦은 안부, 좋은 집에 대한 열망의 6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예전의 식욕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자식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길 바라며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주 연락을 하여 안부를 묻는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또한,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네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독립적인 삶'으로 나타났으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 자유로운 생활, 짐이 되기 싫은 마음, 경제력 확보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며, 끝까지 경제력을 확보하여 자식들에게 신세지기를 꺼려한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는 혼자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바라고 있으며,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참여자는 함께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력을 확보하고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경제적 자립'으로 나타났으며, 넉넉한 용돈, 자력, 경제적 원조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노후생활의 안정에 제 일차적 조건이 된다. 경제력이 없는 참여자들은 넉넉한 용돈을 바라고 있으며,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거나 노후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섯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만족한 삶'으로 나타났으며, 분수에 맞는 생활, 자식에 대한 만족, 현실수용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통해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으며, 남편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자식의 보살핌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원원이 될 수 있으며(Bae, Park, 1999),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 자녀나 손주로부터 심리·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Kwon, Cho, 2000). 사별 후 혼자서 4남매를 키운 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자식들이 잘 되었을 때 남편생각이 간절했다고 하며, 지금은 자식들이 장성해서 자식에게 가장 의지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식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나이가 더 많아지면 자식이 보살펴 줄 것을 믿고 있으며 장남에게 가장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덟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났으며, 베푸는 생활의 1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하면 타인에게 베풀어 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가치있게 사는 것이라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홉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빠대있는 가문’으로 나타났으며, 선조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의 1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조상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남기길 바라며 자손들에게 근본에 대해 가르쳐 빠대있는 가문임을 알리고 싶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 번째, 노인의 소망과 관련된 중심의미는 ‘행복한 끝맺음’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한 죽음, 적절한 시기의 죽음, 사후처리,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997)은 자연법칙에 따른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초래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지나온 일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애먹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잠을 자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한다. 또한, 갑자기 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장례비 정도는 마련하는 등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며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 묻히고 싶어한다. 나이가 80대에 이르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 관계나 여가활동 등 모든 측면에서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마지막 삶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노인의 소망에 대한 간호중재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노인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첫째, 노인은 자식, 손주들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갖게 되며 세대간의 결속도가 높으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친척과의 적절한 지지체계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상담체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을 모색하며 세대간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대접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강증진 행위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섭취, 건강교육, 건강상담을 통해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며, 무료 건강관리 센터, 건강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여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 평안하고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취감을 느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경제적인 곤궁은 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연금, 보험금, 생활보호 대상자의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원조를 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을 통해 노화에 적응해가며,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인생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노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자녀와 손주라고 한다. 따라서, 가족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노년기에 접어들면 의지가 약해지고 자녀, 친척, 이웃에 대해 물질적으로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인학교나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을 하도록 지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노인들은 남을 도와주고 인정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느낌과 남을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봉사단체에 참여하여 노인의 능력에 맞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노인은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현실적 상황을 평가하여 삶

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삶을 지속시켜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희망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여 노인이 바라는 소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에서 유용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2001년 5월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른 2001년 8월까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5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평균 약 1시간 20분 정도였고 1인당 면담 횟수는 3~5회였다. 자료분석은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소망은 1) 대접받는 삶: 효자녀, 손주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갈등 없는 삶, 자식으로부터 공경, 자녀와 같이 하는 삶, 2) 행복한 삶: 귀향하고 싶은 마음,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칭찬 받는 자녀, 자식의 결혼, 동기간의 우애, 자식의 건강,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삶, 자식의 자립, 자손의 행복, 좋은 친구 관계 유지,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 3) 평안한 삶: 건강유지, 식욕유지, 평온한 마음, 진실한 마음, 자식의 잦은 안부, 좋은 집에 대한 열망, 4) 독립적인 삶: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 자유로운 생활, 짐이 되기 싫은 마음, 경제력 확보, 5) 경제적 자립: 넉넉한 용돈, 자력, 경제적 원조, 6) 만족한 삶: 분수에 맞는 생활, 자식에 대한 만족, 현실수용, 7) 의지하고 싶은 마음: 남편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자식의 보살핌, 8) 봉사하는 삶: 베푸는 생활, 9) 뼈대있는 가문: 선조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10) 행복한 끝맺음: 편안한 죽음, 적절한 시기의 죽음, 사후처리,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간호는 인간을 신체, 정신, 사회, 심리, 영적으로 통합된 총체적 존재로서 휴머니즘 철학에 근거한 인간중심의 질적인 간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최대의 만족을 누리며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를 노인간호 임상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노인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간호중재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인간과학으로서 간호학은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간호실천을 지향해야 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노인의 소망은 학부학생이나 임상간호현장의 기존 간호사에게 교육 및 재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노인간호교육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환경적 측면 등 노인에게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참여노인들의 소망을 살펴본 바 노인들은 자녀와 손주등 혈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 및 이웃, 친지등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핵가족시대의 가족구성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가치, 태도를 고려한 문화기술지 방법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ae, Y. S., Park, O. J.(1999).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Nursing Science*, 4(1), 1-15.
- Butler, N. L.(1962). *A theory of hope based upon garbiel marcel with implication for the psychiatrist and the minister*.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Boston.
- Choi, Y. H., Kim, S. Y.(1997). Development of health behavior assessment tool of the korean elders. *J Korean Acad Nurs*, 27(3), 601-613.
- Kang, Y. S., Park, O. H.(1999). A study on stressful life events, self-esteem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n a rural community. *J Korea Comm Health Nurs Academic Society*, 13(1), 1-11.
- Kim, J. S.(1998). A study on self-esteem, IADL,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28(1), 148-158.
- Kim, K. B.(1997). Health promotion of elderly

stage. *J Korean Acad Nurs*, 36(4), 6-13.

Kim, S. H.(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op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Buk University, Jeon ju.

Ko, S. D., Kim, M.(1996).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in the elderly. *J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3(2), 115-129.

Ko, Y. B.(1985). The elderly problem of Korea. *J Korean Acad Nurs*, 24(2), 9-1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Population statistics of world & Korea. Seoul: KNSO

Kwon, J. D., Cho, J. Y.(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 Korean Geronto Soc*, 20(3), 61-76.

Lee, K. O.(1998). A study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and needs of home health care of the elderly. *Nursing Science*, 10(2), 73-82.

Leininger, M.(2000).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o, FL: Grune and Stratton.

Palmore, E. et al.(1979). Stress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Gerontology*, 34(6), 841-851.

Park, K. R., Jae, M. K., Oh, C. O.(1995). The actual family life and the needs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J Korean Geronto Soc*, 15(2), 117-139.

Parse, R. et al.(1985). *Nursing research-qualitative methods*. Bowie, Maryland : Brady Communicational Company.

Rycrott, C.(1979). *Steps to an ecology of hope : The sources of hope*. Pergamon Press.

Sung, M. S.(1999). *The correlation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Abstract -

Wishes of the Elderly

Kim, Eun-Sook* · Kim, Kwuy-Bun**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search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nd to analyze the contents so that we can be assured about what the elderly wish and find the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 for them in real life.

Method: This is based on a phenomenological approach.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 of people older than 65 years old. Data was collected from May to August in 2001. Data collection was done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The time used in each interview was from 50 minutes to 2 hours.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three to five times.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used in data analysis.

Result: The elder's wishes are 1) a respected life, 2) a happy life, 3) a peaceful life, 4) a independent life, 5) a financially independent life, 6) a satisfactory life, 7) a mind to depend on someone, 8) a serving life, 9) a historic family, 10) a happy-ending life.

Conclusion: The study will contribute for the nursing interven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Key words : Wishes

* Assista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